

익산 서부권 시대 '활짝'

행정·문화중심지... 유아부터 노년층 아우르는 문화·복지시설 구축

익산 서부권에 각종 공공기관과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면서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축산 악취 민원까지 개선되면서 탄탄한 기반 시설과 함께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서부지역에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세대별 문화·복지 시설이 차례로 구축되면서 지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육아 기능이 추가된 온 가족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 '익산가족센터·여성회관'이 모현동 옛 농약잔수관 자리에 건립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책임질 평생학습교육관을 최근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 개관했다.

이밖에도 익산경찰서·우체국·보훈지청·남중학교 등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어 행정 1번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탄탄한 기반 시설에 이어 악취 등 환경문제 개선으로 쾌적한 정주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서부권 악취의 주범이었던 송학동 영명농장의 폐지 3천500마리가 모두 출하되면서 축산 악취가 전면 해소됐다. 당시 시는 영명농장과 축사 폐업 업무협약체결을 체결했으며 이후 서부권 악취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는 평가다.

해당 성과로 익산시 전체 악취 발생빈도의 30%, 서부권 악취 민원의 95%를 차지했던 가축분뇨 냄새가 대폭 개선됐다. /익산=이특훈 기자



익산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

도시재생으로 노후 도심 '활력'

익산시, 익산역 서편·남부시장 등 재생 본격화

익산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

도농복합 도시로 농촌지역 일대에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발전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농촌지역을 활기 넘치는 정주여건으로 탈바꿈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마면 동고도리 일대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중심거점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마면 동고도리 일원 16만680㎡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국비 80억, 도비 13.3억, 시비 40억 등 총사업비 133.3억원 투입되며 대대적인 도시정비 기반 마련 사업이 펼쳐진다.

첫 단계로 정주환경개선을 목표로 3

월부터 주민커뮤니티 시설조성과 골목길 정비가 시작된다. 이밖에도 골목상권 활성화·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체험프로그램 운영, 상권활성화 지원, 주민 참여형 마을축제 및 프리마켓, 주민역량강화 등 11개 세부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합월지역 또한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협의체 준비모임,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휴공간을 활용한 골목환경개선 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합월지역은 우리시 농촌중심지 재생권역으로 세종시 금강 만경강, 상당포구 등 지역적 접근성과 합월 근대도시 연계방안을 활용한 지역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익산=이특훈 기자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활력구축사업 업무협약

익산시는 지역 농가 판로 확보와 소득 향상을 위해 마을전자상거래 인프라 확대 구축한다.

시는 10일 (재)한국우편진흥원, 소비자교육중앙회익산지회, 익산시정보화농업연구회와 우체국 라이브방송과 소규모 판매 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판매자와 고객이 직접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 채널 개설, 우체국 소규모에 익산시 농산물 전용관을 개설해 콘텐츠 제작, 기획 프로모션 및 홍보 등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제반 사항 지원 생산자와 소비자단체는 철저한 품질관리, 바른상거래 조성 및 소비자 이용 불편 사항 점검 등이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마을전자상거래는 오픈마켓(네이버, 옥션, 지마켓 11번가)에 우체국 라이브방송과 소규모를 추가 운영해 농산물 판로 확대에 농가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전자상거래는 소규모 농가들의 새로운 수익창출과 침체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농산물 판로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농산물 판매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영세농·고령농 등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자를 더욱 확대하여 농민들의 판로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특훈 기자

배달의명수, 시민 사랑 감사 이벤트 진행

군산시 공공배달앱 출시 2주년, 감사한 마음 담은 선물 팜팡

군산시는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출시 2주년과 봄 신화를 맞아 그동안 보내준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선물에 재미를 더한 시민 사랑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출시 2주년 감사 이벤트는 '배달의명수' 앱을 이용한 고객에게 '배명의미블'이라는 주사위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게임 결과에 따라 2천원부터 2만원까지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신화가 맞이 이벤트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행사 기간 배달의명수 앱을 이용한 고객은 자동으로 경품추첨에 응모되고, 추첨을 통해 총 104명에게 맥북에어, 애플워치, 에어팟 갤럭시 버즈 프로, 할인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시민 사랑 감사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달의명수' 앱 배너 및 고객센터(1899-8103), 군산시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배달의명수와 함께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며 "시민에게는 더 많은 혜택으로, 골목 사장님에게는 더 든든한 버팀목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배달의명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3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절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된 배달의명수는 온라인 종합 쇼핑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위해 업종 카테고리 확장을 추진해왔으며 2022년도 2월 말 기준 가맹점 1천400여 개소, 가입자 13만15천여 명, 누적 매출 177억 원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군산=남현봉 기자

황철호 군산시부시장, 봄철 산불 대응 현장 긴급점검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이 산불예방 총력 대응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황 부시장은 최근 타 지역에서 대형산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7일 산불 조기진화지인 서수면 축동리 내무정마을 인근과 산불취약지인 망해산 등을 찾아 산불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전 행정력 동원을 통해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철저한 감시와 예방을 당부했다.

시는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5~4.17) 및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리 경계 발령에 따라 분청 산림복지과를 중심으로 23개 읍·면·동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산림복지과 직원의 1/4, 읍면동 직원의 1/6로 증원, 아침 10시부터 일몰시까지 특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봄철 건조시기가 지속돼 대형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난 5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직원의 1/6을 주말 각 읍면동 산림에 배치해 봄철 산불발생의 주원인인 입산자의 실화나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 최소화를 위한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발생 등 유사시를 대비해 유관기관인 소방서 및 경찰서와도 사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면서 "산불진화 및 실화자 검거 등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봄철 산불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학습 기회 확대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발달장애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마음 씬'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도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실태조사'와 병행, 재가 보호 중인 발달장애성인 60명을 발굴해 분야별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한글 장애인 평생교육 복지학회'와 연계해 지난 2월 21일부터 총 7차 2시간의 발달장애성인 파견강사 및 매니저 양성교육을 비대면(Zoosoom)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문교육이 끝나고 내년 교육 대상자의 가정 또는 별도 장소에서 전문강사와 매니저를 매칭해, 2:1로 원예심리, 음악심리, 미술심리 프로그램 중 수강생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시민아이디어 창작공연 지원 사업 실시

일반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제작된 창작공연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일반 시민들의 창의적 문화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문화예술 창작기반을 조성하고자 시민아이디어 창작공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총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영화, 연극, 뮤지컬 등 일반시민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공연분야의 창작을 지원해 주체적인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사업은 만9세 이상 군산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1개인 1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분야별 사업 성격, 규모 및 특성을 감안해 사업비는 차등 지원되고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군산=남현봉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